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찬양대에서 신입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대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가 오늘 오후 4시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평소에 지나치게 격식을 차린 옷을 입기보다, 넥타이를 풀고, 반팔 셔츠, 반바지 등을 입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약 3도 시원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 5:1~7 / 시 80:1~2, 8~19
히 11:29~12:2 / 눅 12:49~56

마 8:28~34

식 당 봉 사 : 김금순 이춘재 이은정 서수진 박숙영 이지혜 박영희 김기성
다음 주 식당봉사 : 이형숙 광혜자 권미숙 김수진A 이미혜 이명희 최숙화 최재욱
오늘설거지봉사 : 3남, 5여선교회
다음 주 설거지 : 두란노2속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삶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의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나서야 하는지 늘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주님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죄의 뿌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치고 있는지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정죄하며 분쟁을 일으키던 잘못된 구습을 단호히 버리고, 주님 곁에서 순결한 영혼을 회복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정 김순자 김용길 최영혜 김용태 김정훈 이진영 김종철 고영애
 김주영 김정길 최숙화 김종락 박영신 김철수 유영남 박석희 조항미
 방극숙 송영철 안세진 오미경 오송경 우순덕 원주신 윤수진 이광섭
 이국노 김민화 이한림 김명희 이인웅 이정은 임주빈 최현옥 정현모
 조순덕 주경진 이윤정 최은미 추현영 한상익 정영선 허성호 진은혜
 허신열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남홍 김민지 김종락 박영신 박성래 박호규 강영남
 방문성 배미숙 신민철 이병수 이유일 김미희 무명8

생일감사헌금

윤정덕 이은주 정영선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김정진 김혜정 민병배 문현미 박성래 송영철 한기택
 무명7

	장혜숙 노순옥 김재흥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권미숙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장영숙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박미영 김금순 윤수진 오현정 서정순 조항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김세진	심	심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빛방울 화석

창녕 우포늪에 가서 만났지
 빨 빛 번진 진회색 판에
 점점점 찍혀 있는 빛방울 화석.
 혹시 어느 저녁 외로운 공룡이 빨에 퍼질러 앉아
 흘뿌린 눈물 자국?

감춘 눈물방울들이
 채 굳지 않은 마음 만나면
 흔적 남기지 않고 가기 어려우리.
 길섶 쭉부쟁이 얼룩진 얼굴 몇 점
 사라지지 않고 맴도는 가을 저녁 안개
 몰래 내쉬는 인간의 숨도
 삶의 육필(肉筆)로 남으리
 채 굳지 않은 마음 만나면.

화석이 두근대기 시작한다.

- 황동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제멋대로 욕심내고 함부로 판단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십시오.

아멘. 육체의 욕심에 빠져 헛된 꿈을 꾸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내게 와서 깨끗해지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새 삶의 길로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너를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별 모임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김진경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완식 장로	양상철 선생 이영란 집사

8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박석희 유경순 조항미 이현순
	헌금위원	한상의 정경례

‘그놈’에게서 벗어나는 법

"평화란 어떤 것일까?"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아이들은 느닷없는 질문에 잠시 쓰악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 "밥을 같이 먹는 것",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다들 엇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독일 국적의 한 아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옥천 초등학교의 ‘그놈’과 싸우지 않는 것." 아이들도 교사도 함께 웃었다. 그 아이만 빼고. 그는 나름대로 진지했다. 모두가 평화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데, ‘그놈’의 얼굴, 표정, 목소리를 떠올리는 순간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대체 ‘그놈’이 누구일까? 묻지는 않았지만 짐작은 간다. 녀석은 피부색이 다르고, 국어가 익숙하지 않다 하여 아이를 짓궂게 놀려댔을 것이다. 그 때문에 한번 열전을 벌이기도 했을 것이고. 방학이 되어 잠시 휴가분하게 잊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질문이 ‘그놈’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놓은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놈’이 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말이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그는 싫다는 데도 지긋지긋 우리 기억 속을 파고들어 평온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킨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마치 유령처럼 등장해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신산스러운 삶에 비애감을 더해준다.

아주 오래 전 어느 선배가 들려준 일화가 생각난다. 생활 한복 차림에 수염을 멋지게 기르고 다니던 그는 강연차 지방에 갔다가 늦은 밤 주최 측이 마련해 준 작은 모텔에 들어갔다. 수건과 주전자를 올려놓은 쟁반을 들고 방까지 따라온 주인은 다짜고짜 "도사님, 어느 산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해도 주인 아주머니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급기야는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지 좀 봐달라"고 하소연하기까지 했다. 짐작되는 바가 있어 선배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놈을 용서해!" 하고 말했다. 그러자 아주머니의 낯색이 대뜸 변하면서 "그렇게는 못 해" 외치고는 자리를 떠나더란다. ‘그놈’은 예전에 그 아주머니를 떠나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는 ‘그놈’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놈’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먼저는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지 않던가. 문제는 그것이 더 짙은 그림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루쉰의 작중인물인 ‘아Q’가 보여준 정신승리법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기력한 찌질이 ‘아Q’는 동네 건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얻어맞으면 뒤돌아서서 ‘자식 같은 놈이니 봐준다’고 혼잣말을 하고, 사람들이 벌레 같이라며 때리면 벌레를 때린 놈들은 더 나쁘다며 자기를 위로한다. 그는 언제나 승리자이다. 하지만 그는 영원한 패배자이다. 모든 문제를 세상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는 망상의 세계 속에 칩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를 신에게로 가져가 신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제는 신의 정의가 너무 더디게 집행되는 것 같다는 데 있다. 때로는 신이 그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거나. 그럴 때면 ‘그놈’은 더욱 특의의 웃음을 띠고 찾아와 속을 뒤집어놓는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와 대면하여 갈등을 갈등으로 드러낸 후 화해를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많은 한국인들은 특히 이것을 어려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모색해야 하는 까닭은 정신적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것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가장 큰 불행은 가해자에 대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가해자를 닮아버리는 것이다. ‘그놈’과 화해를 모색하는 것은 그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피해의 기억에 붙들려 살지 않겠다는 일종의 독립투쟁이다. 하마다 게이코의 동화 <평화란 어떤 걸까?>를 읽다가 가슴 훈훈해지는 구절과 만났다.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네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평화에 대해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는 없다. ‘그놈’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할 대상이다. ‘그놈’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벽이라 해도 어딘가에는 문이 있다지 않던가.